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I : 자발형과 비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예측 요인 탐색*

성미애**·최연실***·이재림****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자발형과 비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 우울)를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50세 미만의 기혼자 361명(자발형 182명, 비자발형 17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 기혼자는 중간 수준으로 생활에 만족하였으며, 자발형이 비자발형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은 유형에 상관없이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자녀 유형에 상관없이 젊고, 종교를 중시하는 삶을 살고, 부부소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유형별 차이도 있어 자발형은 남성인 경우, 홀벌이인 경우, 부부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부부만 보내는 시간의 빈도가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비자발형은 가족주의를 지지하는 경우,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을 지지하는 경우, 취학 전 자녀를 어머니가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덜 동의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우울을 예측하

* 본 연구는 한국 무자녀 부부를 자발형, 연기형, 비자발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실태 차이를 살펴본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최연실 외, 2014)에 이은 두 번째 논문임. 본 연구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2S1A5A2A03034353). 2013년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성미애(주저자): 성미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이다. 주요관심분야는 가족 관련 가치, 가족 및 친족 개념,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 일-가족 양립, 은퇴생활, 비혼 여성 등이다. E-mail: eliza_s@knou.ac.kr

*** 최연실: 최연실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이며, 가족심리와 임상 작업, 가족관계의 내적 역동 분석, 다문화가족, 한국가족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yschoi@smu.ac.kr

**** 이재림(교신저자): 이재림은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조교수이며, 취업모의 가족과 일, 조모의 손자녀양육 지원, 세대 간 자원이전, 청년과 가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jaerimlee@skku.edu

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무자녀 유형에 상관없이 부부만 함께 대화하거나 활동을 하는 시간의 빈도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유형별로는, 자발형의 경우 부부소득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남녀차별적 가족부양 태도를 보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비자발형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고, 부부소득이 낮은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때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차이 등 무자녀 부부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무자녀 기혼자, 자발형 무자녀, 비자발형 무자녀,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 우울

I. 문제제기

결혼을 하면 당연히 출산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출산관이 지배적이던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자녀의 출산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을 개인이나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영역에 두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20-44세 기혼여성의 17.0%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하는 등(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출산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무자녀 가족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무자녀 가족이나 비자발적인 불임에 의한 무자녀 가족, 또는 사고나 질환 등으로 자녀를 잃은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배경에서 형성된다. 이에 따라 무자녀에 대한 용어도 ‘무자녀(childlessness)’, ‘불임’과 같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비자녀(childfree)’와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Gillespie, 2003).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학계에서는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단행본 등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무자녀 가족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유영주, 2004; 정옥분 외, 2005; 정현숙·옥선화, 2008; 한국가족학연구회, 1994). 이들 단행본에서는 삶의 개성이나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앞으로 무자녀 가족의 생활이 연구되어야 하는 가족형태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다양성’, ‘변화’ 등이 한국가족을 설명하는 주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무자녀 가족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임을 입증하는 도구인 동시에 공식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는 여성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

다(김은실, 2001). 그리고 결혼 안정기에 들어선 가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가족으로서도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젊은 비혼자들에게도 자리를 잡고 있다(Yang & Rosenblatt, 2008).

이러한 배경에서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이나 젊은 비혼자를 대상으로 무자녀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양성은, 2004; Yang & Rosenblatt, 2008), 무자녀 기혼자의 무자녀 결정경험이나 생활세계를 살펴본 연구(공미혜·이수연, 2012, 2013; 권윤진, 2004; 김상수, 2006; 김정미·양성은, 2013; 이수현, 2012a, 2012b; 조준영, 2006), 불임여성을 대상으로 부담과 지원정책을 살펴본 연구(김경래, 2012; 황나미, 2011)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구의 경우에도 무자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결정이 지속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연구(Heaton et al., 1999), 무자녀 가족이 된 과정을 살펴본 연구(Gillespie, 1999; Jacobson & Heaton, 1991; Kemkes-Grotenthaler, 2003; Park, 2005; Tanturri & Mencarini, 2008), 무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본 연구(Mueller & Yoder, 1999; Park, 2005), 무자녀의 삶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Houseknecht, 1979), 젠더에 주목해서 살펴본 연구(Hird, 2000; Weston, 2002) 등 무자녀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실제로 무자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자를 중심으로 자발형과 비자발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무자녀를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자녀 가족을 단일한 범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선택해서 무자녀 가족이 된 경우와 본인의 선택이 아니지만 불임, 건강상의 문제, 늦은 결혼 등의 이유로 무자녀 가족이 된 경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택은 본인의 의지와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고 여성과 모성을 동일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상황에서 부부의 의지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무자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기혼자는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가 된 이유에 따라 무자녀 상황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무자녀 기혼자를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 분리해서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심리적 복지가 개인의 삶의 긍정적, 부정적 심리 감정을 포함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총체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McDowell & Newell, 1996). 이처럼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복지 수준, 즉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한경혜·손정연, 2012).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 출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등식이 등장하는 오늘날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가족의 한 가지 형태인 무자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기혼자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이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무자녀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기혼자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무자녀를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 나누고, 이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살펴보고,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발형 무자녀와 비자발형 무자녀의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 우울), 개인 특성, 부부 특성, 태도 및 가치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발형 무자녀와 비자발형 무자녀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개인 특성, 부부 특성, 태도 및 가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자발형 무자녀와 비자발형 무자녀의 우울을 예측하는 개인 특성, 부부 특성, 태도 및 가치 특성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는 무자녀 가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삶 속에서 사회통합의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를 고려해 볼 때, 무자녀 가족 내의 차이도 파악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삶의 긍정적, 부정적 심리 감정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개념(배진희, 2007)으로,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복지는 생활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살펴보는 연구(김오남, 2004; 박주연·김경신, 2012)와,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긍정적 심리 기능을 강조하는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사용한 연구(한경혜·손정연, 2012)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리적 복지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전자의 관점을 취한다.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공존한다(Bradburn, 1969).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심리적 복지를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강유진, 2011; 김경민·한경혜, 2004; 김명희·최연실, 2007)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생활만족도를,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우울을 심리적 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생활만족도는 주로 정서적 차원인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 연구가 시작되었다(Pavot & Diener, 1993). 이후 생활만족도는 현재의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인정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를 나타내주는 감정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김태현, 1998)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심리적 복지 중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적절하다.

한편, 우울은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의 개념이다. 우울은 근심, 침울감, 무력감 및 수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 정의되기도 하며(Battle, 1978) 분노가 자기 안으로 향할 때 일어나는 증상(Lazarus, 1976)으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울은 심리적 복지 중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를 전반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심리 감정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며, 이러한 심리적 복지를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부모됨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할 때 비교 집단으로 사용되어왔다(Umberson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는 결혼과 출산이 별개인 경우가 많은 서구의 특성상 결혼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함께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자녀와 유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비교한 서구의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무자녀와 유자녀의 심리적 복지와 디스트레스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Evenson & Simon, 2005; Koropecykj-Cox et al., 2007; Pudrovska, 2008), 무자녀 성인의 디스트레스 수준이 자녀가 어린 부모들보다 낮

다거나(Nomaguchi & Milkie, 2003) 무자녀의 우울 수준이 유자녀보다 낮다는 중·노년기 연구(Bures et al., 2009)도 있다. 2000년대 서구의 무자녀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한 Umberson 외(2010)는 적어도 특정한 사회집단에서는 무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않으며, 무자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자녀의 이유, 사회적 맥락 등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2.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예측 요인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측면으로 개인 특성, 부부 특성, 태도 및 가치 특성이 있다. 즉 기혼자의 삶은 개인의 삶에 부부관계가 더해지므로 개인 특성과 함께 결혼으로 인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부부 특성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무자녀 기혼자의 경우 가족생활과 관련된 태도 및 가치 특성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불임으로 인한 무자녀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삶의 형태이지만, 자발형 무자녀의 경우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전통사회의 보편적 출산관에 변화가 나타나고 출산도 선택이라는 의식이 부각되면서 시작한 가족 형태이다. 따라서 무자녀 기혼자의 태도 및 가치 특성도 심리적 복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는 개인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의 중요도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사회적 편견이나 주위의 반응이 개인에게 미치는 무게는 여성에게 더 클 수 있다(권윤진, 2004; 김은실, 2001). 따라서 무자녀 남성보다 무자녀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높으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불필요한 외부 자극은 무시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는 높고 우울은 낮을 수 있다. 또한 종교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며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성미애, 1999),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는 부부 특성인 결혼지속연수, 맞벌이 여부, 부부소득, 부부소득 적정성, 부부만의 시간 빈도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지속연수가 길다는 것은 서로 간 적응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 맞벌이 여부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직장 일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만족도를 높

이고 우울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모두 직업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우므로 심리적 복지와 부정적으로 관련될 수도 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부부의 소득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소득 수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면서(김경민·한경혜, 2004; 김명희·최연실, 2007),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은 그 자체로 생활만족도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개인과 가족의 소비지출은 그들의 절대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박은태, 2011). 따라서 부부소득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부부소득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생활만족도 및 우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부부관계의 질은 기혼자의 생활만족도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최문임·최규련, 2007),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부부 간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무자녀 기혼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태도 및 가치 특성인 자녀에 대한 태도, 가족주의,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태도에는 신념이나 의견, 그리고 판단이 내포되어 있고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행동이나 반응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일어나는 행동을 방향 짓는다(양한주, 1998). 가치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나 관점으로(행정학 용어표준화연구회, 2010), 생활만족도와 우울이라는 개인 정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다. 특히 무자녀 기혼자의 경우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태도가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태도 및 가치 특성 중 자녀에 대한 태도, 즉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노년기 무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해외연구에 따르면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낮은 수준의 심리적 복지(우울, 외로움)를 예측하였다(Koropeccky-Cox, 2002). 한편 가족주의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개개 가족 구성원보다 중시하는 가치이다(옥선화, 1989). 부부를 중심으로 일종의 대안적인 삶을 영위하는 무자녀 기혼자가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내면화할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한국가족의 가족주의적 특징을 고려할 때 자

녀가 없는 기혼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등 확대가족을 포함하여 가족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가치보다 근대적 가치를 지향하며, 성별 역할 분담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녀 기혼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 즉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태도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은 본질적으로 모성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로, 여성은 모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보는 관점이다(윤택림, 1996). 따라서 무자녀 기혼자, 특히 무자녀 기혼 여성의 경우 이런 태도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면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우울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수용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자녀 기혼자에게 무자녀의 삶이라는 자신의 삶의 양식을 수용하게 하며, 그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무자녀 기혼자의 개인, 부부, 태도 및 가치 특성과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성은 무자녀가 된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무자녀 가족을 본인의 선택에 기초해서 형성했는지 아니면 불임, 건강문제, 늦은 결혼 등과 같이 상황으로 인해 형성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무자녀가 된 이유에 따라 심리적 복지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유형을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 나누고, 이들의 개인 특성, 부부 특성, 태도 및 가치 특성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무자녀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¹⁾

본 연구는 (1)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2) 자녀가 없고, (3) 50세 미만인 남성 또는 여성 중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를 무자녀 부부로 규정할 이유는 통상적으로 신혼부부로 간주되는 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자 결혼지속연수에 제한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자녀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포함한 생물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연실 외(2014) 참고

학적 자녀, 양자녀, 계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자녀가 없는 경우를 무자녀로 정의하였다. 50세 미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합계출산율 등에서 가입기를 49세까지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연령대의 무자녀 부부에 한정하고자 함이었다.

본 연구는 할당표집으로 조사대상자를 확보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2010)에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가구원 자료에서 연구대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군의 비율을 분석한 후, 이 비율과 유사한 비율로 성별, 연령대, 직업군을 비례 배분하였고, 자발형과 비자발형이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표집되도록 유의할당하였다. 무자녀 유형의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무자녀 부부 유형 분류

자녀 갖기 시도 경험이 없는 이유		무자녀 유형	
자녀 갖기 시도 경험 없음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발형	
	자녀 갖기를 원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	비자발형	
	자녀 갖기를 원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비자발형	
현재 자녀 갖기 시도 여부 및 시도하지 않는 이유			
자녀 갖기 시도 경험 있음	현재도 시도함	비자발형	
	현재 자녀를 갖고자 시도하지 않음	과거에는 자녀를 원했으나 현재를 원하지 않음	자발형
		불임으로 판정받았거나 의심됨	비자발형
		원인 미상이나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음	비자발형

주: 연기형 무자녀를 제외한 분류임

예비조사는 2012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3년 1월과 2월에 걸쳐 전문리서치 회사를 통해 훈련된 면접원이 일대일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한 자료 중 본 연구에서는 연기형을 제외한 자발형과 무자발형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 중 부부가 모두 응답한 6쌍의 경우는 개별 측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편 6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은 자발형 182명과 비자발형 179명, 총 36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복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 복지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통해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Pavot와 Diener(1993)의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5개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는 내 이상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내 삶을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내 삶을 거의 바꾸지 않을 것이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자발형 .90, 비자발형 .9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으며 5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울 역시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Radloff(1977)의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Scale) 2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 우울 증세를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드물게/없음’ 1점에서부터 ‘대부분/항상’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값은 자발형 .86, 비자발형 .87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으며 20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개인 특성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의 중요도 4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 1에서부터 ‘박사 및 박사과정 졸업/제학’을 5로 코딩한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종교의 중요도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중요도에 대한 응답으로, ‘종교 없음’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0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함’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부부 특성

부부 특성은 결혼지속연수, 맞벌이 여부, 부부소득, 부부소득 적정성, 부부만의 시간 빈도의 5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결혼지속연수는 결혼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1과 ‘홀벌이’ 0으로 코딩한 이분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부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을 ‘소득 없음’ 1점부터 ‘800만원 이상’ 18점까지 50만원 급간으로 측정된 후 두 사람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부부소득 적정성은 “귀하 부부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매우 부족하다’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하다’ 5점까지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부만의 시간은 지난 1개월 동안 배우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거나 활동을 함께 한 빈도를 측정한 것으로 ‘전혀 보내지 않았음’ 1점에서부터 ‘거의 매일’ 6점까지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4) 태도 및 가치 특성

태도 및 가치 특성은 자녀에 대한 태도, 가족주의,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의 5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자녀에 대한 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사용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역코딩)’ 등의 질문으로,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찬성한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게 자녀는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태도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자발형 .69, 비자발형 .67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으며 8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족주의는 옥선화 외(2000)에서 사용한 척도 8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보다 가족의 관심사를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시가 쪽과 친정 쪽 모두에 살기가 어려운 친척이 있다면 시가 쪽 친척을 먼저 도와야 한

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불행이다’, ‘자손은 조상이 욕되지 않도록 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장남은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부모와 의논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등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를 더 지지함을 의미한다. 가족주의 가치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자발형 .72, 비자발형 .7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으며 8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라는 단일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가 양성평등적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는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는 여성가족부(2010)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생활양식에 대한 수용 정도를 살펴본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성인이라면 결혼을 전체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이혼 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부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 등의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생활양식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생활양식에 대한 수용 정도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자발형 .68, 비자발형 .6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으며 11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 1>인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 개인·부부·가치 및 태도 특성의 전반적

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와 같은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 개인·부부·가치 및 태도 특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티검증(t-test)과 카이제곱(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인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을 예측하는 개인, 부부, 가치 및 태도 특성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및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여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3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분석은 자발형과 비자발형 자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 개인·부부·가치 및 태도 특성의 전반적 경향²⁾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 개인·부부·가치 및 태도 특성의 전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무자녀 유형별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자발형의 평균이 4.62점($SD = .98$), 비자발형의 평균 4.26점($SD = 1.05$)이었다. 가능한 점수범위(1-7점)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발형의 평균이 비자발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 = 3.32, p < .001$). 무자녀 유형별 우울 수준은 자발형의 평균이 1.63($SD = .33$), 비자발형의 평균이 1.69($SD = .36$)이었다.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할 때 자발형과 비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우울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자발형과 비자발형은 우울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77, ns$).

성별은 자발형의 경우 남성이 54.39%이었고, 비자발형은 남성이 42.4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자발형이 평균 35.71세(범위: 24-49세), 비자발형이 평균 37.54세(범위: 26-49세)로 비자발형이 높았다($t = -2.63, p < .01$).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자

2) 본 연구의 표본이 대표성 있는 전국 표본과 유사한지 비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2010)에서 실시한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가구원용 자료에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와 동일한 조건(결혼지속연수 3년 이상, 무자녀, 50세 미만)을 충족하는 응답자를 선택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들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연수, 맞벌이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은 평균 36.35세, 교육수준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재학이 62.9%, 결혼지속연수는 평균 6.87년, 맞벌이가 22.2%로 나타났다. 이를 <표 1>과 비교해 보면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연수는 본 연구와 유사하며, 맞벌이의 비율은 이 연구의 표본이 높았다.

발형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05%가 4년제 대학 졸업 및 재학 상태였으며, 비자발형의 경우는 39.66%가 4년제 대학 졸업 및 재학 상태였다. 종교는 자발형인 경우 69.78%가 무교였으며, 비자발형의 경우 48.04%가 무교였다. 무자녀 유형별 종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 = 20.93, p < .001$). 응답자의 직업은 전업주부와 무직을 제외하면 사무 종사자(자발형 25.82%, 비자발형 25.69%)와 판매·서비스 종사자(자발형 18.68%, 비자발형 18.99%)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부부특성 중 결혼지속연수는 자발형의 경우 평균 5.30년(범위: 3-22), 비자발형의 경우 평균 6.79년(범위: 3-23)으로 비자발형의 결혼지속연수가 길었다($t = -3.42, p < .001$). 그리고 두 유형 모두 과반수 정도가 홀벌이 가족이었다(자발형 52.75%, 비자발형 53.63%). 부부의 합산 소득은 주로 300-500만원대이었고, 부부소득의 적정성(범위: 1-5점)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자발형($M = 2.85$)과 비자발형($M = 2.9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부만의 시간 빈도는 자발형과 비자발형 모두 '거의 매일'(자발형 38.5%, 비자발형 36.3%)과 '일주일에 2-3회'(자발형 35.7%, 비자발형 33.0%)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가치 및 태도 특성 중 자녀에 대한 태도(범위: 1-4점)는 두 집단 모두 중간보다 자녀가 필요한 편에 조금 가까웠고, 비자발형($M = 2.86$ 점)이 자발형($M = 2.70$)보다 자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t = -4.21, p < .001$). 가족주의(범위: 1-5점)는 두 집단 모두 중간 수준으로 지지하였으며, 비자발형($M = 3.04$)이 자발형($M = 2.90$)보다 조금 더 지지하였다($t = -2.75, p < .01$).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범위: 1-5점)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발형($M = 3.86$)과 비자발형($M = 3.8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범위: 1-5점)는 두 집단 모두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비자발형($M = 3.69$)이 자발형($M = 3.51$)보다 자녀를 어머니가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하였다($t = -2.22, p < .05$).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에 대한 수용도(범위: 1-5점)는 중간 수준이었으며, 자발형($M = 3.08$)과 비자발형($M = 3.05$)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 개인·부부·가치 및 태도 특성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t
	M	SD	M	SD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1-5)	4.62	.98	4.26	1.05	3.32***
우울(1-4)	1.63	.33	1.69	.36	-1.77
개인, 부부, 가치 및 태도 특성	n	%	n	%	χ^2
성별					
남	99	54.39	76	42.45	5.15*
여	83	45.60	103	57.54	
교육수준 ^a					
고졸 이하	56	30.76	56	31.28	2.10
전문대(재학 포함)	39	21.42	43	24.02	
4년대 대학(재학 포함)	82	45.05	71	39.66	
대학원(재학 포함)	5	2.74	9	5.08	
종교					
기독교	30	16.48	64	35.75	20.93***
천주교	15	8.24	20	11.17	
불교	10	5.49	9	5.02	
무교	127	69.78	86	48.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86	47.25	83	46.37	.03
홀벌이	96	52.75	96	53.63	
직업 ^a					
전업주부 및 무직	55	30.21	67	37.43	4.27
관리자	11	6.04	10	5.5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	10.43	11	6.14	
사무 종사자	47	25.82	46	25.69	
판매·서비스 종사자	34	18.68	34	18.99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조립, 단순노무	16	8.79	11	6.15	
부부만의 시간 빈도 ^a					
한 달에 2-3회 이하	9	4.9	16	8.94	2.42
일주일에 1회	38	20.9	39	21.8	
일주일에 2-3회	65	35.7	59	33.0	
거의 매일	70	38.5	65	36.3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t
	M	SD	M	SD	
연령	35.71	6.43	37.54	6.76	-2.63**
종교의 중요도(1-5)	2.25	3.48	3.91	3.89	-4.27***
결혼지속연수	5.30	3.50	6.79	4.73	-3.42***
부부소득 ^b	11.36	3.48	11.82	3.48	-1.27
부부소득 적정성(1-5)	2.85	.84	2.90	.80	-.62
자녀에 대한 태도(1-4)	2.70	.39	2.86	.36	-4.21***
가족주의(1-5)	2.90	.52	3.04	.48	-2.75**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1-5)	3.86	.70	3.85	.59	.12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1-5)	3.51	.79	3.69	.77	-2.22*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1-5)	3.08	.46	3.05	.45	.59

^a 응답자 수가 적은 셀은 통합하여 제시하였음. 회귀분석에서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b 50만원 급간으로 측정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범위: 1-18)을 합산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2. 무자녀 유형별 생활만족도 예측 변수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발형의 경우 개인, 부부, 태도 및 가치 특성 변수가 생활만족도 총 분산의 35%를 설명하였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 종교의 중요도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자발형 남성이 자발형 여성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beta = -.22, p < .01$), 연령이 낮은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고($\beta = -.25, p < .01$), 삶에서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beta = .14, p < .05$). 부부 특성 중에서는 맞벌이 여부, 부부소득, 부부소득 적정성, 부부만의 시간 빈도가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홀벌이인 경우($\beta = -.20, p < .05$), 부부소득이 높은 경우($\beta = .23, p < .05$), 부부소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beta = .33, p < .001$), 부부만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시간 빈도가 높은 경우($\beta = .19, p < .01$)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태도 및 가치 특성 중 자발형 기혼자의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없었다.

비자발형의 경우 개인, 부부, 태도 및 가치 특성 변수들이 생활만족도 총 분산의 37%를 설명하였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연령과 종교의 중요도가 비자발형 기혼자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beta = -.25, p < .01$), 종교가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수록($\beta = .18, p < .01$)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부부 특성 중에서는

부부소득 적정성만이 비자발형의 생활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부부소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beta = .25, p < .001$)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태도 및 가치 특성 중에서는 가족주의, 가족부양에 대한 양성평등적 태도,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는 비자발형 기혼자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즉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할수록($\beta = .30, p < .001$), 남녀 구분 없이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록($\beta = .16, p < .05$), 취학 전 자녀를 어머니가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덜 지지할수록($\beta = -.14, p < .05$)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표 3> 무자녀 유형별 생활만족도 예측 변수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B	SE B	β	B	SE B	β
개인 특성						
성별 (여성 = 1)	-.42	.14	-.22**	-.20	.14	-.09
연령	-.04	.01	-.25**	-.04	.01	-.25**
교육수준	.01	.08	.01	.08	.08	.08
종교의 중요도	.04	.02	.14*	.05	.02	.18**
부부 특성						
결혼지속연수	.01	.03	.02	-.01	.02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 1)	-.40	.19	-.20*	-.17	.21	-.08
부부소득	.06	.03	.23*	.04	.03	.13
부부소득 적정성	.38	.08	.33***	.33	.09	.25***
부부만의 시간 빈도	.18	.07	.19**	.11	.06	.12
태도 및 가치 특성						
자녀에 대한 태도	.12	.18	.05	.03	.21	.01
가족주의	.14	.14	.07	.66	.16	.30***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	.02	.09	.01	.28	.12	.16*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	.06	.09	.05	-.20	.09	-.14*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	.07	.15	.03	.28	.16	.12
상수		2.24			.27	
R ²		.35			.37	

주: B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3. 무자녀 유형별 우울 예측 변수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발형의 경우 개인, 부부, 태도 및 가치 특성 변수들이 우울 총 분산의 23%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특성 중에서는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가 없었고, 부부 특성 중에서는 부부소득 적정성과 부부만의 시간 빈도가 자발형 기혼자의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부부의 소득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beta = -.26, p < .001$), 또는 부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빈도가 낮은 경우($\beta = -.18, p < .05$)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였다. 태도 및 가치 특성 중에서는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만이 자발형 기혼자의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여성도 남성처럼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덜 지지하는 경우($\beta = -.15, p < .05$)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였다.

<표 4> 무자녀 유형별 우울 예측 변수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B	SE B	β	B	SE B	β
개인 특성						
성별 (여성 = 1)	.08	.05	.11	.17	.06	.24**
연령	.00	.01	.08	.01	.01	.17
교육수준	-.03	.03	-.08	-.02	.03	-.06
종교의 중요도	.01	.01	.08	.01	.01	.06
부부 특성						
결혼지속연수	.00	.01	.02	-.00	.01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1)	.04	.07	.06	.14	.08	.20
부부소득	.00	.01	.01	-.03	.01	-.25*
부부소득 적정성	-.10	.03	-.26***	-.01	.04	-.02
부부만의 시간 빈도	-.06	.03	-.18*	-.05	.02	-.17*
태도 및 가치 특성						
자녀에 대한 태도	.04	.07	.05	.13	.08	.14
가족주의	.05	.05	.08	.04	.06	.05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	-.07	.03	-.15*	-.05	.05	-.08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	-.01	.03	-.01	-.02	.04	-.05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	.07	.06	.09	.04	.06	.05
상수		1.86			1.45	
R ²		.23			.17	

주: B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비자발형의 경우 개인, 부부, 태도 및 가치 특성 변수들이 우울 총 분산의 17%를 설명하였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만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는데, 비자발형 여성이 비자발형 남성에 비해($\beta = .24, p < .01$)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였다. 부부특성 중에서는 부부소득과 부부만의 시간 빈도가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부부소득이 낮은 경우($\beta = -.25, p < .05$), 부부만 함께 대화하거나 활동을 하는 시간의 빈도가 낮은 경우($\beta = -.17, p < .05$)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였다. 태도 및 가치 특성 중 비자발형 기혼자의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없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무자녀 부부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발형과 비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의 주요 측면인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예측하는 변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고, 자녀가 없으며, 50세 미만이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61명(자발형 182명, 비자발형 17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 기혼자의 생활만족도는 중간 수준이며, 자발형이 비자발형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무자녀 기혼자의 우울은 무자녀 유형에 상관없이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는 삶을 지속하는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무자녀의 삶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자발형 무자녀 기혼자보다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무자녀와 유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무자녀와 유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무자녀와 유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있다(Evenson & Simon, 2005; Koropeckyj-Cox et al., 2007; Pudrovska, 2008).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무자녀 기혼자와 유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무자녀 기혼자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무자녀 유형에 상관없이 연령이 낮

고,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소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 즉 무자녀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생활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인식할 때 생활에 만족하며, 이러한 가운데 종교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면서 현재의 무자녀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도와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자녀 기혼자에게만 한정되는 결과는 아니며, 중년 기혼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개인의 자원이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이은아, 2007; 이해경·이정연, 200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무자녀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특성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자발형의 경우 남성인 경우, 홀별이인 경우, 부부소득이 높은 경우, 부부만의 시간 빈도가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으로 인식되므로 여성보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선희, 2009). 이처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우리 사회에서 자발형 무자녀 남성의 경우 무자녀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곧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로 연결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은 본질적으로 모성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로 보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했다라도 모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무자녀 여성이 무자녀 남성에 비해서는 낮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자발형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자발형 여성보다 높은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발형 무자녀의 경우 부부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소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홀별이를 하면서 부부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발형 무자녀 가족의 경우 부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부부중심적인 삶을 영위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자발형 무자녀의 경우 자발형과는 달리 가족주의,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태도와 같은 태도 및 가치 특성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한다. 가족주의를 지지하거나 양성평등적 가족부양 태도를 지지하는 경우, 취학 전 자녀를 어머니가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덜 지지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 가족주의와 다른 두 특성은 상반된 지향점을 갖지만, 전통적인 사고와 근대, 탈근대에 이르는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한국 가족의 특수한 상황(성미애, 2006; Sung & Lee, 2013)을

드러내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불임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무자녀 가족이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확대가족을 포함하여 가족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나 취학 전 자녀 돌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생활을 긍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무자녀 기혼자의 우울과 관련해서는 무자녀 유형에 상관없이 부부만의 시간 빈도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가 우울과 부적으로 관련된다든 기존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강석임·전희정, 2013; 신희석, 2002)와 일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자녀 기혼자의 경우 부부중심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자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발형의 경우 부부의 소득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나 남녀차별적 가족부양 태도를 보이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다. 즉 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경우 부부소득 그 자체보다는 소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발형이 여가, 삶의 질 등을 위해 무자녀를 '선택'한 집단임을 감안할 때 생계유지 이외의 활동을 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이들의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부양에 대한 양성평등적 태도와 우울 수준의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부부관계가 양성평등적일 때 심리적 복지에도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에게만 한정되는 결과는 아니며 기혼여성 등 다른 집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강석임·전희정, 2013; 신희석,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비자발형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우울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혼 여성이 우울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에 미혼 남성이나 여성, 기혼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인숙, 2002, 장혜경·차보경, 2003).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비자발적 무자녀 유형에 한정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발형 무자녀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과 모성을 동일시하고 무자녀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회 및 가족의 편견으로 인해 불임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무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자녀 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특성이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기도 하고, 무자녀 유형에 따라 상이한 요인과 관련되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자발형과 비자발형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요인 중 서로 다른 특성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때 무자녀 기혼자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무자녀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자녀 남성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무자녀 유형별로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 연구는 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횡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할당표집이 편의표집보다는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이지만 확률표집 방법이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개인, 부부, 가치 및 태도 특성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우울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기 어렵다. 둘째, 질문지 조사의 특성상 무자녀 기혼자가 무자녀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생활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무자녀 기혼자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무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양한 삶의 양식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추세이다. 비록 젊은 비혼층도 여전히 유교적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무자녀 가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은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Yang & Rosenblatt, 2008)가 있기는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나 상황적 요인에 따라 무자녀의 삶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편견을 양상하기 보다는 다양한 삶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 전환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며 활동을 하는 것이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무자녀 기혼자의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작업이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석임·전희정, 2013. “기혼여성의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33(6): 161-188.
- 강유진,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공미혜·이수연, 2012. “무자녀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경험.” 『가족과 문화』 24(2): 39-63.
- _____. 2013. “무자녀 기혼여성의 낙인 대응전략을 통한 정체성 재정립.” 『여성학논집』 30(1): 129-159.
- 공선희, 2009.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양립과 저출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이슈분석 제1호.
- 권윤진, 2004. 『삶의 기획과정으로서의 ‘아이없음(childlessness)’에 관한 연구: 아이 없는 기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경례, 2012. “불임(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평가와 전망: 여성의 출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108-200.
- 김경민·한경혜, 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 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211-230.
- 김명희·최연실, 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23.
- 김상수, 2006. 『무자녀가족 내 여성의 대응적 삶에 관한 연구: 30대 기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오남, 2004.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07-519.
- 김은실, 2001. 『한국여성의 출산문화,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김정미, 양성은, 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79-95.
- 김태현, 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81-94.
- 박은태(편), 2011. 『경제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104&cid=520&categoryId=520>.

- 박주연·김경신, 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3-46.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발간 등록번호 11-1352000-000952-12).
- 성미애, 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_____. 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 신희석, 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상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5.
- 양성은, 2004.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른 대학생들의 무자녀가족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49-159.
- 양한주, 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 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2 :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 유영주, 2004. 『(새로운)가족학』, 서울: 신정.
- 윤택림, 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 이수현, 2012a. “무자녀 가족 정체성 형성의 경험과 인식 : 외적 반응과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_____. 2012b.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43-88.
- 이은아, 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47-562.
- 이인숙, 2002. “기혼여성의 우울과 배우자지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482-493.

- 이혜경·이정연, 2004. 농촌 중년기 여성의 자기 효능감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71-91.
- 장혜경·차보경, 2003, “갱년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3(7): 972-980.
- 정옥분·정순화·홍계옥. 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현숙·옥선화. 2008. 『가족관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조준영. 2006. 『자발적 무자녀 여성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연실·성미애·이재림. 2014.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 : 무자녀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26(1): 174-205.
- 최문임·최규련. 2007. “중년기 여성의 성적 적응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59-83.
- 한경혜·손정연.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 경제적, 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91-330.
- 한국가족학연구회. 1994. 『가족학』. 서울: 하우.
-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314&cid=476&categoryId=476>
- 황나미. 2011. “불임치료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태와 요구도.” 『Issue & Focus』 74: 1-8.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3): 745-746.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xford, England: Aldian.
- Bures, R. M., T. Koropecykj-Cox, and M. Loree. 2009. “Childlessness, Parenthood,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30: 670-687.
- Evenson, R. J. and R. Simon. 2005.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hood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 341-358.
- Gillespie, R. 1999. “Voluntary Child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 *Reproductive Health Matters* 7(13), 43-53.

- Gillespie, R. 2003. "Childfree and Feminie: Understanding the Gender Identity of Voluntary Childlessness Women." *Gender and Society* 17(1), 122-136.
- Heaton, T. B., C. K. Jacobson and K. Holland. 1999. "Persistence and Change in Decisions to Remain Childl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539.
- Hird, M. J. 2000. "Gender's Nature Intersexuality, Transsexualism and the 'Sex'/Gender' Binary." *Feminist Theory* 1(3): 347-364.
- Houseknecht, S. K. 1979. "Childlessness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2): 259-265.
- Jacobson, C. K., and T. B. Heaton. 1991. "Voluntary Childlessness among American Men and Women in the Late 1980's." *Biodemography and Social Biology* 38(1-2): 79-93.
- Kemkes-Grottenthaler, A. 2003. "Postponing or Rejecting Parenthood?: Result of a Survey among Female Academic Professionals."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35(2): 213-226.
- Koropecykj-Cox, T. 2002. "Beyond Parental Status: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57-971.
- Koropecykj-Cox, T., A. M. Pienta, and T. H. Brown. 2007. "Women of the 1950s and the "Normative" Life Course: The Implications of Childlessness, Fertility Timing, and Marital Statu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in Late Mid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4: 299-330.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Y: Mcgraw-Hill College
- McDowell, I., and C. Newell.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2, 177-237.
- Mueller, K. A. and J. D. Yoder. 1999. "Stigmatization of Non-Normative Family Size Status." *Sex Roles* 41(11-12): 901-919.
- Nomaguchi, K. M. and M. Milkie. 2003. "Costs and Rewards of Children: The Effects of Becoming a Parent on Adult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413-430.
- Park, C. 2005. "Choosing Childlessness: Weber's Typology of Action and Motives of the Voluntary Childless." *Sociological Inquiry* 75(3): 372-402.
- Pavot, W. and E. Diener.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Pudrovska, T. 2008.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in Midlife: Evidence from Sibling Mode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168-181.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Sung, M. and J. Lee. 2013. "Adult Sibling and Sibling-In-Law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f Confucian Family Norm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4: 571-587.

Tanturri, M. L. and L. Mencarini. 2008. "Childless or Childfree? Paths to Voluntary Childlessness in Ita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1): 51-77.

Umberson, D., T. Pudrovska, and C. Reczek. 2010. "Parenthood, Childlessness, and Well-Being: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12-629.

Weston, K. 2002. *Gender in Real Time: Power and Transience in a Visual Age*. NY: Psychology Press.

Yang, S. and P. C. Rosenblatt. 2008. "Confucian Family Values and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Issues* 29(5): 571-591.

(2014. 01. 25. 접수, 2014. 02. 21. 심사, 2014. 03. 15. 채택)

Abstract

Portraits of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Ⅱ : Factors Predicting Voluntary and Involuntary Childless Married Koreans' Psychological Well-Being

Sung, Miai,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hoi, Younshil, Sangmyung University

Lee, Jaer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predict childless married Koreans'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ed by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ata came from 361 childless married Koreans (182 voluntary childless individuals, 179 involuntary childless individuals) aged 49 years or younger, had been married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lived in metropolitan Seoul. We separated the childless individuals into two groups, voluntary childlessness and involuntary childlessness, and examined th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each group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overall, childless married Koreans reported a mod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a relatively low level of depression, but the voluntary group's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involuntary group's. In addition, younger age, greater importance of religion, and greater perceived couple income sufficienc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life satisfaction both for the voluntary and involuntary groups. For the voluntary group, being male, having a single income in the household, higher couple income, and greater frequency of couple-only time were also related to greater life satisfaction. Only for the involuntary group, familism, egalitarian gender roles about family breadwinning, and attitudes toward maternal child care were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nother finding was that both groups' frequency of couple-only time w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Unique factors for the voluntary group were perceived income sufficiency and egalitarian gender roles about family breadwinning, which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For the involuntary group, being female and having lower couple income were related to greater depression.

Our results show that the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both overlapped and differed between the voluntary and involuntary childless groups. This finding suggests that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eterogeneity of childless married Koreans.

Keywords: childlessness, depression, involuntary childlessnes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voluntary childlessness

<부록> 회귀모델에 포함된 변수의 상관관계¹⁾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별 (여성 = 1)	1	.03	-.18*	.02	.11	-.11	.04	-.04	-.09	.06	-.03	-.04	.02	.04	-.13	.24**
2. 연령	.01	1	-.11	.08	.66***	-.13	.17*	.07	-.09	.07	.07	.03	.06	.03	-.21**	.12
3. 교육수준	-.15*	-.13	1	.02	-.21**	.16*	.32***	.19**	.01	.14	.07	-.07	-.11	.07	.24**	-.12
4. 종교의 중요도	.20**	.07	.04	1	.08	.00	.03	.01	-.07	-.02	.12	-.06	.08	.00	.16*	.08
5. 결혼지속연수	.22**	.70***	-.21**	.15*	1	-.07	.04	-.09	-.03	.03	-.00	.09	-.01	.13	-.20**	.10
6. 맞벌이 여부 (맞벌이 = 1)	-.16*	-.10	.02	-.04	.07	1	.68***	.10	-.12	-.07	.02	.04	-.07	.00	.09	-.01
7. 부부소득	-.10	.17*	.27***	.09	.24***	.66***	1	.33***	-.10	.04	.13	.02	-.08	.06	.19*	-.06
8. 부부소득 적성성	-.12	.15*	.18*	.07	.11	.16*	.38***	1	-.08	-.04	.05	-.14	-.18*	.07	.31***	-.05
9. 부부만의 시간 빈도	.05	-.14	.19*	.06	-.11	-.03	.09	.14	1	.06	-.08	.05	.08	-.23**	.07	-.22**
10. 자녀에 대한 태도	.08	-.05	.11	.11	-.07	.04	.04	-.03	-.09	1	.33***	.12	.23**	-.06	.08	.11
11. 가족주의	-.06	.05	.05	.11	.03	-.02	-.02	-.13	-.26***	.35***	1	-.09	.10	.23**	.33***	.10
12. 양성평등적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	-.04	.06	.04	-.01	.05	-.00	.06	.06	.06	.19**	.31***	.23**	.15*	-.12	.04	-.09
13. 어머니의 돌봄 역할에 대한 태도	-.10	.08	.04	.05	-.03	-.07	.09	.11	-.16*	.31***	.24***	.23**	1	-.08	-.15	-.00
14.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활양식 수용도	-.09	.01	.16*	-.07	-.01	-.08	.01	-.05	.06	-.09	.21**	-.09	-.15*	1	.17*	.09
15. 생활만족도	-.22**	-.14	.24**	.16*	-.13	.04	.24**	.40***	.26***	.08	.04	.07	.13	.06	1	-.28***
16. 우울	.16*	.09	-.17*	.09	.12	-.01	-.08	-.31***	-.26***	.06	.19**	-.18*	-.04	.09	-.36***	1

1) 1을 기준으로 하단은 자발형(N = 182), 상단은 비자발형(N = 179)의 상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